

조 사

종교지도자로 일생을 헌신하시고 세연을 다하신 한양원 회장의 덕화를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회장의 오랜 노고를 돌아보자니 시대마다의 삶이 지혜로운 순간으로 빛나고, 한걸음 한걸음의 자취가 후대의 환한 등불로 밝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언제나 큰 길을 열어가고자 하셨던 사려 깊은 마음이 오직 사람을 위해서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였으니, 덕화를 입은 많은 대중들은 마음 가운데 너른 의지처가 사라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인성을 중시하여 모든 사람들을 광명으로 이르게 하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함께 만들어 가자는 평소의 일념은, 우리 모두에게 화합의 지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헌신과 정진은 사회의 나아갈 지침이 되었으니, 후대는 큰 복덕을 얻은 것과 같아, 모두가 넓은 그 길을 따라 화평하고 순창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얼과 정기로써 현대인에게 정신적 가치와 삶의 목표를 찾게 해준 소중한 공덕 또한, 종교인의 나아갈 실천으로 선명하게 남겨지고, 이로써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 모두에게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겨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오랜 수고로움이 이제 상서로운 광명으로 항상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 수승한 일로 삼아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소사에 있어서 항상 경청하고 상의하려는 마음이 크셨기에, 그때마다 오히려 의지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게 밀려왔으니, 저 또한 오늘 이후로 이제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벌써부터 먹먹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누르고 지그시 눈 감으니, 호탕한 웃음은 컵가에 더욱 가깝고 무량복덕은 마음에 더 깊게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지니 추모하는 대중 모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소중한 인연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평생 염원하셨던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다 보시고 가시는지 마음 가득 추모의 인사를 드리며, 덕을 입은 사람들은 고마운 인연으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곳의 걱정과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